

# WITH KRTA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방사협보 2023 vol.395



대한방사선사협회

9 772765 341001  
ISSN 2765-3412





## Contents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02 Intro  
KRTA 방사선사의 날
-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 20 시·도회 소식
- 27 전문학회 소식

###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 38 Guide  
방사선사의 다양한  
해외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의미
- 42 Together  
기사? 방사선사! 호칭 문제
- 44 Review  
초심자를 위한 논문 잘 쓰는 법, 『논문의 힘』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48 Interview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다수의 특허 등록으로 연결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이도병 방사선사
- 52 Thinking  
존재는 함께하는 시간이다
- 54 Trend  
화제의 ChatGPT, 학생들 사이에서도?
- 56 Challenge  
한국 방사선사의 미국 ARRT준비 및 취업 도전기
- 60 Webtoon  
숨 참으세요

### We are RT's

- 62 공지사항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공고
- 65 퀴즈 이벤트  
독자퀴즈

WITH KRTA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WITH KRTA는 협회 홈페이지(www.krta.or.kr)와 웹진(webzine.krta.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KRTA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_  
방사선사의 날  
2023년 7월 31일 대한방사선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축하의 현장입니다.

# WITH KRTA

방사협보 2023 vol.395

발행일 2023년 8월 7일(통권 제395호)  
 발행인 한정환(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위원장 조원홍(삼성서울병원)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충북대학교병원)  
 편집위원 조선일(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양민재(서울대학교병원)  
 심지나(세브란스병원)  
 이호일(세브란스병원)  
 서영석(계명대학교동산병원)  
 백인성(이대목동병원)  
 성열훈(청주대학교)  
 김규형(명지병원)  
 김기정(건국대학교병원)  
 최관우(원광대학교)  
 손진현(신구대학교)  
 강보미(대한방사선사협회)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a@krta.or.kr  
 홈페이지 www.krta.or.kr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편집·디자인 어울  
 인쇄·제작 송현문화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Intro

# KRTA

## ‘방사선사의 날’



(사)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창립 5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기념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정하고 2023년 7월 31일 대한방사선사협회 회관에서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20 시·도회 소식  
 서울특별시회  
 인천광역시회  
 대전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27 전문학회 소식  
 대한CT영상기술학회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방사선과학회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대한방사선치료학회



# 발로 뛰는 협회

- 4. 1 • 연수원 유방초음파전문화교육 개강
  - 연수원 자기공명영상전문화교육 개강
- 4. 3 •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온라인 설명회
- 4. 4 • 심폐소생술로 시민 구한 박상우 회원 인터뷰
  - 방사협보 제394호 시안 확인 및 방향 설정
  - 미디어혁신부 인수인계 및 2023년 사업계획 논의
- 4. 5 • 학술대회 운영 업무협약
  - 학술부 업무보고
  - 총무부 업무보고
- 4. 6 • 안전관리부 업무보고
- 4. 7 • 사업·보험부 업무보고
  - 법제부 업무보고
  - 미디어혁신부 업무보고
  - 복지·권익부 업무보고
- 4. 8 • 임시이사회의
  - 비대위 연석 확대회의
- 4. 9 • 방사선사 2023년 1분기 면허신고 결과보고
- 4. 10 • 교육부 업무보고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면담
  - 간호법 제정 저지 1인 시위

- 4. 11 • 법무법인 자문변호사 면담
  - 재무부 업무보고
  - 공인 회계사 면담
- 4. 12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보건의료단체」 대표단 연속 간담회
- 4. 14 • 제2차 인사위원회의
  - 제3차 회장단회의
- 4. 15 • 연수원 유방초음파전문화교육 종강
  - 부산가톨릭대학교 지방연수원 유방초음파 종강
- 4. 16 •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결기대회
- 4. 17 • 홈페이지 개편 실무자 회의
  - 조명희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면담
- 4. 18 • 부설기관장 업무보고
- 4. 19 • 초음파실 채용공고 회원 민원에 따른 채용공고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NPAS ONEQ(전자결재시스템) 설명회
  - 병원신문 창간 37주년 기념식
  - 13개 단체 연합회 기획위원회 회의
- 4. 21 • 2023년 춘계 전문연수회
  -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종강

- 4. 24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4차 정기회의
  - 간호법 제정 저지 1인 시위
  - 의료자문의뢰 회신
- 4. 25 •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임시이사회
- 4. 26 • 부설기관장 업무보고
- 4. 27 •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단체장 회의
- 4. 28 • 임시 상임이사회의
  - 미디어혁신부 인사말 동영상 촬영
- 4. 29 •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 대응 TFT 회의
  - 연수원 자기공명영상전문화교육 종강
- 5. 1 •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단식 릴레이(한정환 회장)
- 5. 2 •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임원 및 학과장 회의
  -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
- 5. 3 • 제31차 태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단식 릴레이(장지필 부회장)
  - 의료 원팀 갈라치기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 5. 4 • 일반엑스선촬영 및 유방엑스선촬영 진단참고수준 포스터 배포
  - 수요조사 공지 및 안내
  - 복지·권익부 초음파실 채용공고 회원 민원에 따른 채용공고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5. 6 •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단식 릴레이(이배원 부회장)
- 5. 8 • 간호법 철회 1인 시위(이기협 복지·권익이사)
  - 간호법 철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국민 설명회 기자회견
- 5. 9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협의 회의
- 5. 10 •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
- 5. 11 • 의료 원팀 갈라치기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2차)
- 5. 12 • 제1차 운영위원회의
  - 제3차 인사위원회의
- 5. 14 • 춘해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심장초음파 종강
- 5. 15 •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
- 5. 16 •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 5. 17 •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국총장회의
- 5. 18 • 전문학회장 간담회
- 5. 19 • 법제부 업무보고
- 5. 20 • 2023년 제1차 보수교육 강사 양성 교육
  - 연수원 산부인과 초음파 개강





- 5.21 • 연수원 인천광역시 분원 상복부초음파 종강
- 5.24 •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 제1차 연수원운영위원회의
  -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5차 정기회의
- 5.26 • 제12차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회의
  - 대구광역시회 대의원 간담회
- 5.30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 개선 관련 전문가 간담회
- 5.31 • 제2차 간호법 대응 TFT 회의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 면담
- 6. 1 •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접수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 발송
  - 제1차 전문방사선사 운영위원회의
  - 홈페이지 개편 실무자 회의

- 6. 2 • 의료기사단체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간담회
- 6. 8 • 콜센터 업체미팅
  - 메디칼타임즈 기자 인터뷰
- 6.10 • 마산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개강
  - (사)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춘계심포지엄
  -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 6.11 • 연수원 산부인과 초음파 종강
- 6.12 • 법제위원회 제1차 회의
- 6.13 • 대의원 임원 간담회
- 6.14 • 추계학술대회 준비 TFT회의
  - 제4차 인사위원회의
- 6.16 • 제5차 인사위원회의

- 6.17-6.18 • 2023년 법제부 워크숍
  - 연수원 치료전문화교육
- 6.18 • 가야대학교 지방연수원 유방초음파 개강
- 6.19 • 교육인증평가원 운영위원회의
  -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6.20 • 미디어혁신이사, 복지·권익이사 업무 활동
  - 미디어혁신부, 사업·보험부 창립 기념일 행사 논의
- 6.21 •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접수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 발송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국장 간담회
  - 재무부 업무 활동
  - 추계학술대회 관련 부서 회의
- 6.22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간담회(질병관리청 주관)
  - 법제부 업무보고

- 6.23 • 안전관리이사 업무활동
  - 방사선 안전관리 TFT 제1차 회의
- 6.23-6.24 • 보건의료단체 총선거기획단 워크숍
- 6.24 • 연수원 유방영상전문화교육 개강
- 6.24-6.25 • 제20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문항정리 워크숍
- 6.25 • 신구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종강
- 6.27 • 복지·권익이사 업무 활동
  - 미디어혁신부 방사협보 제작 업체 미팅
- 6.28 • 법제부 노무사 회의
- 6.29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6차 정기회의
- 6.30 • 제25대 대의원 보궐선거(전자투표)



# NEWS

## 한정환 회장,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 돌입

-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필요한 단체 행동 진행할 것 -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5월 1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에 나섰다. 지난 28일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수위를 높이며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한정환 회장은 단식 투쟁 천막에서 "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의 본질은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 보건 의료분야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이 아닌

단식 투쟁 현장을 방문한 여·야 의원



## | 성명서 |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모두는 방사선사 직역 침해 우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간호법을 반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방사선사가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 걸까요?

기존의 의료법에서도 진료 보조라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간호사들이 각종 불법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들의 업무를 침범하는 것이 되고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 부족, 간호사 업무 과중 등을 야기하여 국민들에게 의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에서도 이와 같은 고질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직역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더욱더 국민 보건향상에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간호직역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의료 직역이 협업하여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특정 직역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의료행업이 전제로 이루어져야 국민보건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보건 의료분야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복지향상과 간호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간호법의 제정이 타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부작용의 발생(또는 위험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6만여 방사선사는 업무영역을 지키고 국민의 보건을 위해 한 목소리로 호소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필요한 단체 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3. 04.28  
대한방사선사협회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13개 보건 의료단체장

다양한 의료 직역과 협업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부분파업 및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정환 회장의 단식 투쟁 현장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수석 부대표, 전주혜 원내 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방문해 간호법 통과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의견을 나눴다.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과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 원팀 갈라치기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집단 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으로 투쟁 수위

를 높여가겠다고 천명하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우리 6만여 방사선사는 업무 영역을 지키고 국민의 보건을 위해 한목소리로 호소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필요한 단체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 NEWS

## 간호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 방사선사 업무 영역 끝까지 지킬 것 -



간호법 폐기, 400만 보건의료연대 규탄대회에 참여한 보건의료단체장

지난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여 보건의료복지 연대는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재논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주최한 규탄대회는 지역별로 대회사 및 연대사, 구호제창, 각 지역별 학생대표의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 등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의료 원팀 갈라치기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이어갔으며 30여 분에 걸친 가두행진으로 지역 단체의 요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현장에서 연대사를 통해 "오직 간호협회에서만 원하고 있는 '간호법 개정'은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지역별로

이미 전문화, 세분화된 영역을 침범하려는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결정은 결국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오늘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 투쟁을 예고하였으며 연대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단축진료, 연가투쟁 등과 더불어 오는 5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으로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우리 6만여 방사선사는 업무 영역을 지키고 국민의 보건을 위해 한 목소리로 호소한다.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필요한 단체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 결의문 |

안녕하십니까?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한정환입니다.  
오늘 우리 400만 보건의료연대가 다시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시청 앞에서 간호법의 국회 의결통과 후 발생하는 우리 업무 영역 침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를, 간절한 우리의 소리를, 귀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함께 외쳤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과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간호법 처리시 우리의 업무 영역 침탈에 대한 피해와 그로 인한 생존권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간호사협회에도 우리의 업무 영역 침탈을 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을 간호법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  
보건의료연대 400만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 1200만의 생존권이 달린 간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의료, 복지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고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 국회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필수 의사회회장님과 박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보건의료연대 단체장이 무기한 단식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식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을 포기할 정도로, 악법 간호법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면허만 있으면 우리 13개 연대의 일을 할 수 있는 문제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다른 지역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간호사협회는 주장합니다. 타 지역의 업무는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약속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타 지역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요청한 문구를 간호법에 왜?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박합니다.

국민 여러분!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연대 전문가는 국민 여러분께 최고의 의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면허를 지켜야지만 우리의 업무 영역을 지켜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된다면, 파업이라는 최후의 단체 행동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전문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400만 보건의료연대 회원의 목소리, 1200만 보건의료연대 가족의 목소리 귀담아 주십시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대사를 발표하는 한정환 회장



결의문을 낭독하는 이준 사업·보험이사



충북지역에서 진행되는 규탄대회 현장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6차 정기회의 개최

- 의료기사 등 면허증 취득 요건 교육기관에 대한 발의에 강력 대응 결의 -



지난 6월 29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 회관에서 총연합회 회원 단체 8개 단체 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 개최되었다.

이날은 지난 6월 23일 윤준병 의원(더불어 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 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발의에 대한 경과 및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유사 사례에 대한 공동 대책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자격을 현재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 한 자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응시 자격 범위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근시안적 발상에서 마련된 졸속 법안으로 각 의료기사 단체와 총연합회는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하였다. 이에 6월 29일 윤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교육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의료기사, 안경사분들의 직업 실태나 현안에 대해 두루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드려 송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향후 의기총 소속의 8개 단체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의기총 발전 방안과 활동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을 알리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간호법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 분석 및 대응 TFT 활동결과 보고서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5대 협회장 한정환 인사드립니다.

작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간호법 상정과 관련하여 협회는 방사선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침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간호법 내에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침범은 하지 않는다'는 한 줄의 문장을 삽입해주시기를 간호사협회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된바,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우리의 업무영역 지킴과 권익 수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5대 집행부는 향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우리의 업무 범위를 지키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방사선사의 위상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1 배경

### ■ 간호법의 발의와 경과

- 간호법은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간호사 직무에 대한 단독법을 말함
- 주로 의료법의 내용으로부터 분리하여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17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국회 만료로 폐기되었음
- 21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동시에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으로 합친 후 계류되었으나 패스트 트랙으로 의결되고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2023년 4월 27일에 가결되었음
-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으며 국회본회의에 재상정되었으나 5월 30일에 부결되어 폐기되었음

### ■ 간호법안 발의 추진 내용

발의시기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005.04.27.	김선미 (열린우리당)	간호사의 역할, 정의, 자격 및 의무, 전문간호사의 정의 등
2005.08.24.	박찬숙 (한나라당)	요양방문간호/건강교육/경미진료행위의 독자판단 허용 등
2018.01.11.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등
2019.04.05.	김세연 (한나라당)	간호사의 업무 범위: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간호사/조산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표준 보수 지급기준설정 등
2021.03.25.	서정숙 (국민의힘)	간호사의 업무 범위: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최연숙 (국민의힘)	간호·조산법안: 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요양보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간호사의 업무 범위: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 ■ 간호법안에서 가지는 주요 주장 요약

-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수행
  -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수행에 대한 사항을 조문화
- 전문간호사의 업무분야
  -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에 대한 사항과 업무범위 사항을 기존 의료법과 달리 분리하여 조항을 조문화 하였으며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항을 함께 포함
  - 간호조무사의 정의, 자격인정, 업무범위 등을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책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을 조문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조문화
- 간호사 등의 권리와 일·가정 양립지원 보장
  - 간호사 등이 전문성, 경험, 양심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조문화
  - 상기 내용의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을 조문화
  -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유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결손으로 다른 간호사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조문화
-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금지
  -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을 조문화
  -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됨을 조문화
  -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문화
- 교육전담간호사의 양성과 운영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을 조문화
  - 본 조항은 의료법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로 2023년 5월 19일에 신설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항과 동일한 내용임
- 기타 주요 사항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함

## 2 TFT 활동 내용

### ■ 1차 회의

- 회의개요
  - 일시: 2023년 4월 29일(토) 14:00
  - 장소: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의실, 온오프라인 융합회의
  - 참석: 최정욱, 김창욱, 지은, 박상웅, 이기협, 성열훈, 서정민, 김종범
- 회의안건 및 내용
  -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 대응 TFT 구성과 방향
  -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다각적 검토
  - 간호법안의 상정에 따른 우리 협회의 기초에 대한 다각적 검토

■ 2차 회의

○ 회의개요

- 일시: 2023년 5월 31일(수) 18:30
- 장소: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의실, 온오프라인 융합회의
- 참석: 최정욱, 김창욱, 지은, 차중호, 정희동, 유완재, 서정민, 김종범, 서호준

○ 회의안건 및 내용

-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 간호법안의 세부내용에 따른 우리 협회의 기초에 대한 다각적 검토
- 간호법 제정 추진에서 발현된 이슈와 우리 협회의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

3 간호법안의 문제점과 이슈

- 기존 간호법안의 내용 중 문제 제기 될 수 있는 조항과
- 2023년 최종 발의된 간호법 대안 내용 중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
-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의 논란 및 심초음파업무영역과 관련한 내용 등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함

■ 간호인력에 대한 과잉보호와 타 직역에 대한 역차별 소지

○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의 심각한 업무침해 및 신 의료 계층 발생 예상

- 2019년부터 발의된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여 발의함
- 2021년 발의된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

- 2023년 간호법 대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의 불명료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현 의료법의 오인화

부칙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에 대한 간호인력 중심의 정책수립 및 행정을 명문화

: 2023년 간호법 대안 제21조에서부터 제25조에 걸쳐 명시된 간호사 등에 대한 권리와 처우개선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과 제도의 시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각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제2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간호사등의 권리)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간호사등의 책무)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때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타 직역의 업무범위 침해 소지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해당법안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향후에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타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임
- 이는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정책과도 맞물리며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인 심초음파 검사의 수행인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사항임

○ 진료지원인력 정책과 연관된 문제점

-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정책은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의 업무영역과 관리운영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영역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진료지원인력 정책의 과제수행 주체는 의사집단으로서 정책수립의 방향이 사용자인 의사집단의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에 타 직역의 업무영역이 포함되어 불법의료행위를 초래하게 될 문제가 다분함

## ○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 업무 관련 논란

- 대한간호협회에서 2023년 5월 18일에 제시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리스트'에는 초음파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간호사의 초음파검사가 불법의료행위였음을 자인하는 것임
-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의사집단과 간호협회의 기존 입장은 간호사도 의료보조인력으로서 심초음파검사와 같은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아이러니하지만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처럼 시행되었음이 이슈로 불거지면서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인 심초음파검사가 의사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에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 불법의료행위임을 간호사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범위 침해에 대한 잠재적 문제

-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의 자발적인 공개로 간호사에 의해 시행되는 초음파검사가 불법의료행위임이 명확해졌으나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령의 전문간호사 제도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초음파검사가 포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 제언과 결언

##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리 협회의 기초 방향 제언

## ○ 간호법 제정 찬반 입장에 대한 제언

- 우리 협회는 제21대 국회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3개 단체와 함께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음
- 반대의견을 표명한 주된 이유에는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영역 침범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던 것으로 사료됨
-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간호집단 스스로 간호사의 초음파검사가 불법의료행위임을 공표하였으므로 우리 협회도 이를 고려하여 좀 더 실리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일률적인 간호법 찬반의 기초를 가지는 것 보다는 간호법 제정 사태의 과정에서 연대를 맺은 13개 단체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맺어나가며 우리 협회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우리 협회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 우선적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이루어진 관계를 통하여 우리 협회가 회원들을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실리를 얻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방사선사 단독법인 방사선법 제정과 간호법 제정을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으로 사료됨
- 특히 간호사의 초음파검사행위가 불법이므로 의사협회 그리고 간호협회에 대하여 방사선사의 업무영역과 범위를 확실히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간호법 제정이 다시 시도될 경우, 간호법의 내용에 의료기사법 또는 방사선법 등에서 명시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는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간호법에 대한 지지의사를 갖겠다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기사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과의 관계에서 방사선법의 제정과 각 직역의 업무영역을 정립함을 협약하는 등의 다각적인 입장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함

## ■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협회의 활동 방안

## ○ 초음파검사분야의 강화

- 우리 협회의 중앙연수원 과정 강화와 임상 수련 과정 개발 및 도입
- 전문화 인증 과정에 의사 인력과 병원협회 참여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 전문방사선사제도의 개량

- 일부 전문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직무 협업 인증제도를 과감히 협회로 진입시켜 전문방사선사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직무인정성을 강화

## ○ 법/제도적 전략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한 방사선사 업무 범위 강화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문방사선사제도의 법제화
- 방사선사 행위 수가의 법제화
-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한 헌법재판소 제소
- 방사선사 단독법인 방사선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으로의 전략적 추진
- 방사선사 업무범위의 보장과 방어를 위하여 의료기사법 또는 간호법과 같은 신생법에서의 단서조항 신설 또는 개정

## ○ 홍보 전략

- 신문 등의 매체 및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간호법 및 방사선법 제정과 진료지원인력정책 등에 대한 우리 협회의 기초를 알림
-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과제의 정책관리자에 대한 문책 투쟁을 실시하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알려 많은 회원들과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
- 간호사의 초음파검사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임을 자인한 간호협회의 준법투쟁과 맞물려 간호사의 초음파검사행위를 중지할 것을 홍보하며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 조치할 것을 홍보

## ○ 회원들의 화합을 위한 전략

- 방사선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화합을 유도(방사선사의 날 행사는 사업부에서 주관하여 진행 예정 중)
- 회원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회장 직선제, 의료기사 명칭 변경 등 다양한 주제의 공청회를 준비, 진행

## 맺음말

간호사협회는 발의한 간호법이 폐기되었지만 현재도 준법투쟁을 하며 간호법을 재정비하여 재입법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자세한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간호법 재발의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향후 방사선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추계전국학술대회 중 세미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대한방사선사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업무역량의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협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한정환

서울특별시회

# NEWS

## 2023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7차 국제 학술대회 개최

건강한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의 중심 SRTA!



"건강한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의 중심 SRTA!"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엔데믹으로 일상을 다시 찾은 3월,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에서는 2023년 3월 25일(토)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2023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7차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한국·대만·중국·일본) 학술대회로서 약 1,400명이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학술대회 내내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국내의 회원 및 재학생들의 분야별 논문 발표, 포스터 전시, 의료계 최신 동향 심포지엄, QI 개선 활동 심포지엄, 특강 발표 등 다양하고 알찬 학술 프로그램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2023과 함께 진행되었다.

박성모 회장은 학술대회 개최사를 통해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요구될 방사선 학술의 역할과 발전, 보건 향상 기여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적 교류 및 토론의 장!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서울특별시회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협회장이 격려사를 전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대만 타이페이시 양방홍 회장이 축사를 전하였다.

제25대 서울특별시회 학술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로 SRTA대상 이길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학술최우수상 신나영(강남세브란스병원), 학술우수상 한상선(세브란스병원), 학술장려상 이경수(삼성서울병원)와 박상조(세브란스병원), 구연상 이형섭(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과 주영철(삼성서울병원), 포스터 최우수상 박은지(중앙대학교병원) 회원이 수상하였다.

## 2023년 제1차~제2차 따름이 정기권 쿠폰 지원 사업

'서울자전거 따름이, 이용해 보셨나요?'

화창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도록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에서는 '2023년도 제1차~제2차 따름이 정기권 쿠폰 지원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회 정회원의 건강한 출·퇴근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서울특별시회 정회원님들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이동 수단 따름이 신규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 「정기권 쿠폰(180일 1시간 단위 이용권)」을 홈페이지 신청자에 한해 발송하였다.

따름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시행된 회원 복지 사업으로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다. 신청한 한 회원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회원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 중 따름이를 신청하였는데 당첨되었고, 앞으로도 좋은 사업 기대하고 응원한다."라고 전하였다.

이에 제25대 서울특별시회 최홍희 복지이사는 "서울특별시회 회원 행복을 위한 복지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하였다.



## 2023년 제1차~제2차 부서장 간담회 개최

제25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에서는 '존중받는 직UP! 함께하는 협UP! 혜택받는 사UP!' 비전으로 회무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하는 협UP!'으로 서울특별시회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제1차~제2차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차는 서울특별시회 회원 30명 이상 근무 병원 부서장, 2차는 서울특별시회원 11~29명 근무 병원 부서장 및 보직자 대상으로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서울특별시회 소개, 사업의 목적, 사업 일정 등 회무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고, 화합의 시간 석식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모 회장은 "서울특별시회는 변화의 중심이 되어 회원과 함께 정책과 사업의 역동성을 만들어 더 나아가 회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나갈다."라고 전하였다.



## 2023년 제1차~제3차 분회 간담회 개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에서는 중소 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도 제1차~제3차 분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분회 중소 병·의원에 근무하는 정회원 대상으로 진행되며, 간담회 전 참석 대상 회원님들께 서울특별시회 임원들이 직접 문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간담회 취지 목적 안내와 참석 독려를 하고 있다.

박성모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서울특별시회 회무 안내 및 일정 공지, 기타 사항 논의, 석식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회원님들의 의견으로 ▲휴가 시 아르바이트 구인 제도 마련 ▲정회원을 위한 혜택 및 제도 마련 ▲정년퇴임 후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 ▲근로계약서 등 문서 작성 프로그램 마련 ▲중소 병·의원 회원 전용 상담 창구

개설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유되었다. 박성모 회장은 "회원님들께서 전달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으며, 각종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와 서울특별시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였다.



인천광역시회

# NEWS

## Movie day 행사 개최

4월 13일(목) 오후 7시경 인천광역시회에서는 <Movie day(무비데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인천광역시회 회원의 복지를 위해 기획한 행사로, 동반 1인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개최되었다.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주안 CGV에서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존윅 4>를 관람하였다. 시원한 콜라와 맛있는 팝콘, 그리고 화려한 액션을 감상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과정 수료식

대한방사선사협회 중앙연수원 인천분원은 5월 21일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과정>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해당 과정은 3월 25일 개강 이후 9주에 걸쳐 87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21명의 회원님들이 수료하였다. 수료식에는 마지막 수업을 진행해 주신 고은주 강사님이 참석하여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전문화 과정 수료를 위해 달려오신 회원님들께 앞날을 응원하는 말을 전하였으며,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박종창 회장 및 윤일 부회장이 참석하여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수료식 이후 간단한 다과회를 열어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박종창 회장은 "주말마다 학업을 위해 나오신 회원분들의 열의에 감사드리며, 상복부초음파 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제22회 미추홀 국제학술대회 개최

IRTA의 축제 <제22회 미추홀 국제학술대회>가 5월 13일(토)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미추홀 국제학술대회>는 인천 의료기사 연합회에 소속된 8개 단체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학술대회로,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는 다양한 의료장비 홍보를 위한 부스 운영, 재학생 및 인천광역시회 회원들의 논문발표, 보수교육 및 국제 학술 포럼을 진행하였다. 이날 재학생 세션 및 회원 세션에서는 국제 학술대회라는 이름에 증명하듯이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논문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보수교육 세션에서는 신한대학교 치기공과 신중우 교수의 '스마트 삶을 위한 open AI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또한, 국제 학술 포럼에서는 인천광역시회 17대 임원진과 후쿠오카 진료방사선사협회의 야스히코 회장, 그리고 시오타

니 부회장과 의 화상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협회 간 정보교류 및 6월 24~25일에 열릴 후쿠오카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회에서는 <제22회 미추홀 국제학술대회> 회원 세션에서 대상을 수상한 임세원(가천대학교) 회원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가연(가천대학교 길병원) 회원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대전광역시회

# NEWS

## 2023년도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대전광역시회(회장 박희왕)는 2023년 5월 21일(일) 대전 가양동에 위치한 대전보건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전광역시회 소속 방사선사와 가족, 대전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본 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약 5년만에 개최하였으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대전광역시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전·세종 지역 병·의원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 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와 가족들(약 40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오프라인 <심폐소생술 보수교육>을 진행하였다.



## 전기선 국제이사 제51회 보건의날 대전시장상 수상



대전시는 2023년 제51회 보건의날 및 제75회 세계보건의날을 맞이하여 2023년 4월 7일 대전 서구 오페라 웨딩컨벤션에서 지역 보건 향상에 기여한 보건·의료 종사자의 보상과 시민건강증진 인식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종사자 외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주제(Health For All)에 맞춰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날을 맞이하여 대전시는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대전광역시회 전기선 국제이사에게 대전시장상을 수여하였다.

대구광역시회

# NEWS

##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와 메디엑스포 코리아 업무 협약

지난 4월 27일 목요일 대구 엑스코(503호 회의실)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엑스코가 주관하는 메디 엑스포 코리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업무 협약을 위해 제17대 김청모 회장 외 3명의 임원이 엑스코를 방문하였으며 엑스코 이상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메디 엑스포 코리아와의 인연은 지난 2022년 7월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023년 7월에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두 단체의 상호 협력과 지역 의료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와 해성의료재단 업무 협약식

지난 5월 23일 화요일, 해성병원(별관 아리즈웰 6층)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와 해성의료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업무 협약을 위해 해성병원 신언성 의무원장과 사무국장, 대외협력팀장 외 2명이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임원진을 맞이했다. 해성병원은 대구 경북 최대 규모의 재활간호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0월 별관 아리즈웰(암재발방지) 병동을 오픈하여 뇌신경재활과 암재활을 중점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각각 홍보와 세미나 장소 제공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하였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원 문화의 날



5월 27일 토요일, 삼우 볼링장과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대구광역시회 회원 문화의 날> 행사가 있었다. 첫 번째 행사로 회원들과 함께 볼링 대회를 열었는데 이날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수석부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장지필 부회장, 서울특별시회 박성모 회장, 부산광역시회 윤주호 회장, 경기도회 차중호 회장 그리고 대구광역시회 서정현 전임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다. 첫 번째 볼링 대회는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과 김청모 대구광역시회 회장의 시구를 시작으로 회원과 회원 가족들 그리고 임원들이

각각 팀을 이뤄 경기를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우수선수 시상은 물론 행운권 추첨까지 자리해 주신 회원들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이어서 두 번째 행사는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와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회원들과 함께 관람을 하였다. 여러 회원들과 한목소리로 한 팀을 응원하고 함께 즐기는 좋은 시간이었다. 17대 임원진의 첫 번째 회원 복지 행사의 시간에 많은분들 덕분에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대구광역시회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대구광역시회

# NEWS

## 대구광역시회 인스타그램 개설

지난 4월 대구광역시회는 회원들과의 더욱 가까운 소통을 위하여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였다. 기존의 홈페이지와 문자 등으로 소식을 알려왔던 대구광역시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다 경량화된 이미지로 회원들과 소통을 하고 각종 이벤트와 함께 협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고 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I.D: drta\_krta\_or\_kr

태그검색: #대한방사선사협회대구광역시회 또는 #대구광역시회



## 2023년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지난 6월 17일 토요일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에서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을 시작하였다. 교육은 8주 동안 총 87시간 진행되며 대구광역시회 이미화 교육이사를 필두로 전문 강사진들로 구성된 교육팀이 24명의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회 초음파 전문화교육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실습은 두 명의 강사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각 회사별 최신 장비들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현장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8주간의 교육 기간 동안 영상의학과의 전문의, 개원의 그리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좋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 2023년 제20회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 개최



지난 7월 1일 토요일 대구광역시 컨벤션센터(EXCO)에서 <제20회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작년과 같이 MEDI EXPO와 협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전시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참석 규모로는 460여 명의 회원과 대한방사선사 협회 한정환 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회 회장 및 임원들 그리고 홍석준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컨벤션센터 이상길 대표이사도 참석해 주셨으며 아울러 대구광역시장 표창, 홍석준 국회의원 표창, 대한방사선사협회 표창, 대구광역시회장 표창 수여도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400석 규모의 메인 세미나실을 비롯한 200석 규모의 3개 세미나실에서 각각 회원 논문발표와 이상길 대구광역시 컨벤션

센터 대표이사의 특강을 비롯한 방사선치료학회, 초음파의료영상학회의 Hands-on Live, 핵의학기술학회, CT영상기술학회, 자기공명기술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학회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 강좌 선택의 폭을 높였다. 그 밖에 학술대회장인 EXCO 동관은 전시면적 2만5000㎡의 공간에서 400여 개의 기업들이 10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최신 의료기기들과 세미나들로 다양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

넓은 공간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학술대회에서 많은 분의 수고와 회원들의 질서와 협조 덕분에 높은 수준의 학술대회를 개최 할 수 있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귀빈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대구광역시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NEWS

## 2023 대한CT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CT영상기술학회(회장 김정훈)는 지난 4월 29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회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학술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의 엔데믹 선언을 앞두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잇따랐으며, 5월 1일 노동절 연휴와도 맞물린 데다 멀리 여수에서 개최되는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인파가 집중되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16개 업체의 부스전시, 쇼츠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총 18편의 구연논문과 3편의 포스터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SIEMENS, PHILIPS, GE, CANON 4사의 CT장비 최신 지견에 관한 특강과 함께 'CT검사 국가 선량관리시스템과 심평원 건강보험적정성 평가항목의 선량 모니터링 시스템의 동향 및 의료기관 적용의 이해'라는 주제로 대구보건대학교 김정수 교수의 특강도 열려 더욱 유익한 학회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6월 24일에는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선량관리 연수강좌가 있었다.

'의료 방사선 선량 관리의 외국 현황 및 국내 정책 방향'(바이엘 코리아 송윤희 이사), '방사선 선량관리 내용과 방사선사의 역할'(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성관 방사선사),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계의 현재와 미래'(삼성서울병원 정명진 교수), 'Deep learning을 적용한 CT영상의 화질 및 선량 변화'(서울아산병원 박경진 방사선사) 등 CT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선량관리에 대한 질 높은 강연이 이뤄졌다.

# NEWS

## 2023년 제25차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봄은 백화난만(百花爛漫)과 양신미경(良辰美景)의 계절이다. 이러한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5월 20일 토요일에 방사선 학술분야에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는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건국대학교병원 본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처음 대면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였다. 이번 연도에 새롭게 선임된 김광수 회장(서울아산병원)의 개회사를 필두로 초청 강연 정재은 교수(대구보건대학교)의 '디지털세상' 연제강의와 권재현 강사(삼성메디슨)의 SI 심포지엄을 통해 회원들의 심화지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학회 회원들의 논문발표는 일반연제와 재학생연제를 각각 진행하여 학술연구에 자웅을 겨루었다. 본 학회의 강점(強點)은 다양한 연구 분야와 디지털의료영상연구의 접목(接木)에 기반을 둔 학회이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 연구 주제도 방사선환경 연구를 포함하여 혈관조영, 단층촬영, 치료학, 자기공명영상 등의 방사선과학의 광의(廣義)적 분야의 논제(論題)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의 화응(和應)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본 학회는 '좋은사람들이 모이는 학회' 그리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본 학회 회원들을 위해 모든 회원들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인생사진 촬영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추후 개최할 학술대회에서도 본 학회 회원의 모든 세대 공감과 어울림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한층 더 노력하고자 한다.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 NEWS

##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2023년 MRI 임상기초강좌 개최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준규)는 지난 6월 24일 토요일 강북삼성병원 C동 지하 2층 대회의실에서 MRI실에서 근무하는 초보자를 위한 임상 부위별 기본 검사법, 영상기법, 인공물과 해결책 그리고 임상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 MRI 임상기초강좌>를 개최하였다.

임상기초강좌는 2022년 신설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에 개최된 입문강좌와 더불어 MR근무자들을 위한 임상적인 내용에 대한 기초강좌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 회원들의 사후 질문에서 요청이 많았던 심장 MRI에 대한 임상기초 강좌 개설되었고, 강좌를 등록한 회원들 대상으로는 상급병원 MRI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서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자기공명기술학회에서 새롭게 마련한 교육 체계를 발표하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유튜브와 대면강좌로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더 확장된 교육관을 제시하였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뇌 및 두경부 MRI 임상기초 (건국대학교병원 권순용)
- ▲ 척추 및 근골격 MRI 임상기초 (고대구로병원 유은수)
- ▲ 유방 MRI 임상기초 (이대목동병원 이충성)
- ▲ 심장 MRI 임상기초 (고대안암병원 김경민)
- ▲ 하복부 MRI 임상기초 (국립암센터 김범철)
- ▲ 상복부 MRI 임상기초 (서울대학교병원 김용주)

<MR안전관리연수강좌>를 모두 등록하여 대면강좌를 소화해 낸다면 'MR정복의 길'은 누구보다도 가깝게 느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전했다.

학회 측은 새롭게 제시한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MRI 기본물리의 이해를 돕는 <MR입문강좌>와 MRI실 방사선사들에게 환자의 스캔시 도움을 줄 수 있는 <MR임상기초강좌>를 상호 조화롭게 운용하여 MR입문자를 위한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다가올 9월 16일로 예정된 <MR안전관리 연수강좌>도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였습니다.



## 제33차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준규)는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제33차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회원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약 500여 명이 접수한 가운데 수 개월간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제한되었던 학술대회가 지난 4월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방역 방침에 따라 3년 만에 오프라인 단독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이인숙 교수의 근골격 및 척추 MRI에 대한 이해와 최신 지견에 대한 특별강연과 2개의 Session으로 나뉘어 회원과 재학생의 23편의 논문 발표와 8편의 포스터전시, Special Session으로는 연구 윤리교육 및 논문작성법에 대한 강의로 MRI 기술의 최신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연구 중에 뛰어난 학술연구에는 명예로운 학술상과 포스터상, 구연상 등이 수상되었다.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학술상

▶ 최관우(원광보건대학교) 「둘러겹침허상 제거를 위한 금속성 메쉬 포화 밴드(Mesh saturation band) 성능의 모의실험에 관한 연구」

### 고문단 학술상

▶ 권순용(건국대학교병원) 「고속스핀에 고 기법을 이용한 MRI 검사 시 영상 변수가 전자파 흡수율과 온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평가: 재위상화 RF의 FA과 ETL 증가에 따른 영향」

### 대한실드 학술상

▶ 장지성(서울아산병원) 「합성 자기공명영상에서 고신호 강도 제거 기법의 유용성」

### 우수 포스터상

이규훈(화순전남대병원) 「HASTE 기법에서 Calibration방식에 따른 지방소거 영상 평가」

### 구연상

▶ 곽현아(서울아산병원) 「근골격계 확산강조영상 적용시 X-축 거리에 따른 MS-EPI DWI 신호 손실 비교 평가」

▶ 김성현(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Superflab Bolus를 활용한 Magnetic Susceptibility 감소에 대한 연구」

▶ 임설희(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골반 자기공명영상 검사 시 Single Diagonal Direction 확산강조영상의 유용성 평가」

▶ 김정훈(아주대학교병원) 「Spine 검사 부위에 따른 SENSE와 CS-SENSE의 선택적 사용의 필요성」

▶ 이충성(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간 동적 조영 검사의 유용성 평가: VIBE 시퀀스의 고식적인 방법과 심층학습 방법의 비교」

▶ 박시연(울지대학교 방사선과) 「와인색 반영구 문신용 염료가 자기공명영상에 미치는 영향 및 발열 감소방안」

김준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만 3년간의 코로나 이슈로 온라인 행사로 제한됐던 학술대회가 회원님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면서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고 3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잊지 않고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학회 임원들이 성심 성의껏 준비한 학술잔치를 각 회원님들과 재학생이 즐겁게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술대회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부산지회 정근석 지회장을 비롯한 부산지회 관계자, 특별강의를 해주신 이인숙 교수 외에 논문작성법 특별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된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지」 및 「JKSMRT」에 게재될 예정이다.



# NEWS

## 2023년 대한방사선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대한방사선과학회(회장 김성철)는 지난 6월 2-3일 <제45회 2023년 대한방사선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방사선과학의 미래! 다시 뛰는 대한방사선과학회'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215명의 회원과 재학생, 일본방사선기술학회(JSRT)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온라인 방식과 현장 참석 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취업창업 프로그램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최신 의료영상 트렌드 및 취업 창업 분야에서 적용 방안'을 주제로 의료 AI 업체 VUNO Inc. 김형섭 연구원의 특강과 '딥러닝 모델

학습을 통한 디지털 엑스선 장치 및 영상 분야에서의 응용'을 주제로 건양대학교 김용권 교수의 특강이 있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또 국제 구연 발표 세션,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신진 과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사선 과학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많은 회원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었다.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논문발표 세션은 국제 논문 4편, 국내 논문 54편, e-포스터 7편이 발표되었으며, 심사를 통한 수상자 및 논문주제는 아래와 같다.

### 일반 4편

#### 최우수구연발표상

▶ 서정민(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관리구역의 방사선률 교육을 위한 시뮬레이터의 개발과 유용성 평가」

#### 우수구연발표상

▶ 이은우(가천대학교)

「Computational evaluation of SAR values according to the normalization method」

▶ 이민규(의정부유지대학교병원)

「SiPM 기반의 PET/CT에서 자체 제작한 팬텀을 이용한 금속 아티팩트 감소 알고리즘 유용성 평가」

▶ 조진형(충북대학교병원)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한 전용 올인원 정도관리 팬텀 개발 및 영상 평가」

### 국제 1편

#### 최우수구연발표상

▶ Daniel Hernandez(Gachon University)

「Corelation between Complex Electrical Permittivity and Relaxation Time ant 7 Tesla MRI」

### 대학원생 1편

#### 최우수구연발표상

▶ 조혜진(동서대학교)

「골밀도 검사의 검사자 의존성 개선을 위한 Conditional GAN 기반 초해상화 알고리즘 개발: 팬텀연구」

### 신진과학자 1편

#### 최우수구연발표상

▶ 이주아(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위적 방사선수술 시 2차 발암 확률에 관한 평가」

### 포스터세션

#### 최우수포스터발표상

▶ 이선화(가천대학교)

「Significance of Bone Mineral Density and IMT of Carotid artery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 우수포스터발표상

▶ 임세원(가천대학교)

「Fast non-local means 알고리즘의 평활화 인자 변화에 따른 간 분할 성능 최적화: A phantom study」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 NEWS

##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회장 구혜정)는 지난 5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건국대학교 병원 대강당에서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오프라인에서 회원들을 만나는 뜻 깊은 자리로, 구혜정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류희연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좌장은 김현진 전임 회장(16대)이 맡아 이번 학술대회를 더욱 빛내 주었다.

학술대회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학생과 회원들의 논문/증례보고 발표와 특강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재학생들의 3편의 논문 발표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3편의 증례 보고와 2편의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특강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그것이 알고 싶다: 급여성초음파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원광보건대학교 김연민 교수의 강의를 통해 급여성초음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헤민안과병원의 임소영선생의 ‘MZ세대도 궁금해하는 안과 초음파’에 대한 유익한 강좌를 통하여 안과 초음파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은 학회장 내 마련된 별도의 강의실 두 곳에서 핸즈온 특강이 진행되었다. 복부, 심장, 혈관, 근골격, 갑상선/경동맥 파트로 나누어 사전에 신청한 회원과 현장에서 응모권에 당첨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임상에서 각 분야에서 경험이 오랜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듣고, 평소 궁금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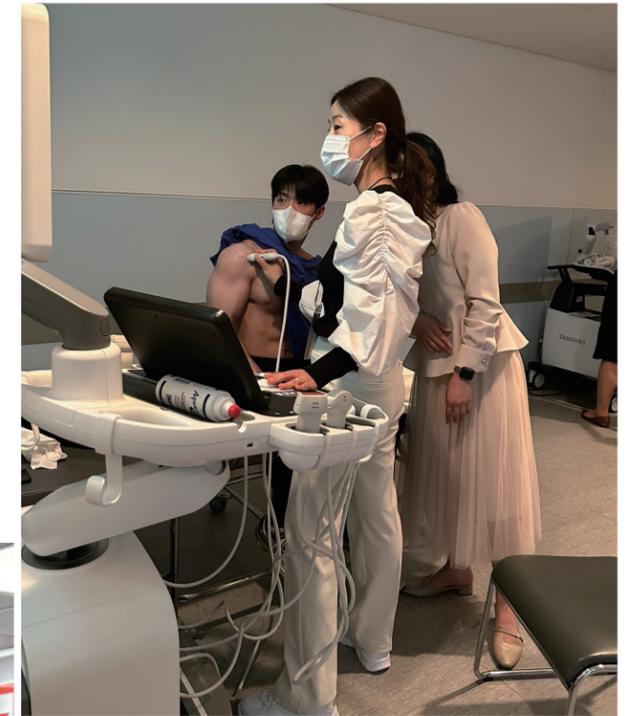
폐회식에서는 학술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학술대회 최우수상은 ‘갑작

스런 심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급성 승모판막 역류증’이라는 증례를 보고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조구래 회원이 수상하였다. 우수상 수상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이라는 증례 보고한 ▶삼성서울병원 이정민 회원이 수상하였다. 장려상 수상은 ‘자동 유방초음파 검사 시 촉진성 병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표지자의 유용성 평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윤미현 회원이 수상하였다. 구연상 수상은 ‘지방간 정량화 초음파 검사 시 정상군에 대한 결과 해석 유의점: MRI-RDFF를 참고기준으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삼성서울병원 조한별 회원과, ‘초음파에서 고위험 병변과 DCIS’라는 증례를 보고한 ▶기쁨병원 영상의학과 고은주 회원이 수상하였다.

재학생 부문에서는 ▶동남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유은교 학생이 ‘자체제작 도플러 팬텀의 활용 가능성 평가’라는 주제의 논문발표로 협의체회장을 수상하였다. ‘ATP를 이용한 초음파 장비와 탐촉자 표면 온도 측정’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신구대학교 방사선학과 유준상 학생과, ‘죽상경화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와 관련성 연구: 경동맥 초음파 검사 대상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동의대학교 방사선학과 김정준 학생이 학생구연상을 수상하였다.

학회장에는 초음파 관련 업체 부스와 바리스타가 직접 제조하는 커피 부스가 설치되어 많은 회원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특강과 핸즈온 강의를 맡아주시는 강사님들, 실습 팬텀을 해준 학생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써주시신 임원진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추후 예정되어 있는 추계학술대회와 11월 25일 보수교육에도 많은 성원을 바라는 바이다.



###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학회 성황리 개최

정부의 코로나 대응지침이 완화되면서 전문학회 학술대회 개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회장 백금문)는 지난 5월 20일(토)에 <2023년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하였다.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한 전문학회 및 각 시도회장의 축하를 받았으며, 310여 명의 회원이 등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방사선사의 아낌없는 헌신에 감사하면서 코로나 이후 오직 대면으로만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마쳐서 다시금 전문학회 활동이 왕성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전달했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변화경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규제사업 양정선 PM,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김수산 교수의 특강연제와 6편의 회원 일반연제가 발표되었고, 참가자들을 위한 조출한 경품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백금문 회장은 코로나 이후 회원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이 다시금 열린 것에 기뻐하며 올해 가을 대한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와 함께 The-K hotel에서 국제학술대회인 <제10회 Asia Radiation Therapy Symposium(ARTS)>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였다. 아울러 회원분들께 학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의료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여 회원 간 소통과 존중, 협력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38

#### Guide

방사선사의 다양한 해외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의미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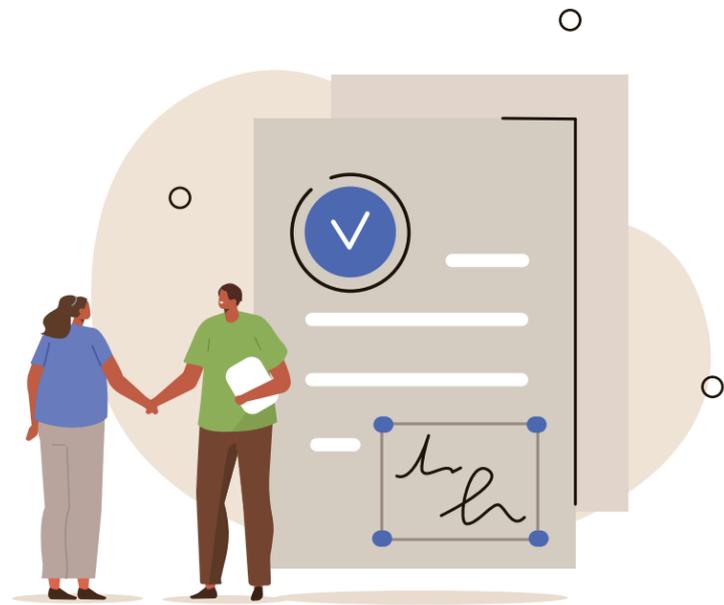
#### Together

기사? 방사선사! 호칭 문제

44

#### Review

초심자를 위한 논문 잘 쓰는 법, 「논문의 힘」



## 방사선사의 다양한 해외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의미

글 김상진(서울대학교병원)

### 머리말

현재 다양한 해외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각 학회 측에서는 많은 외국 방사선사 회원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해외 국제학술대회는 학술적인 연구논문, 사례보고, 최신 검사기법 등의 연구내용을 각국의 발표자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며 소통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국제학술대회 발표의 이점은 본인이 발표한 주제논문 내용에 대한 외국 회원들의 색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 또 다른 아이디어나 제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해외 국제학술대회 참석은 일반 외국 회원들과의 교류의 시간이 되며, 더불어 주최 국가 방사선사협회 측과의 인적 교류로 자

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의 형식은 7~8분 구연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구연 발표와 포스터 발표 형식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필자는 방사선사 선생님이 많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종류와 국제학술대회 장소에서의 점검 사항, 참가의 필요성, 의미 등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기고하고자 한다.

### 해외 국제학회 종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국제학술대회가 매년 많은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다. 많이 알려진 몇몇 국제학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RSNA) 학술대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 매년 미국 시카고에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개최된다.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ECR) 학술대회 RSNA학회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국제 학회, European Society of Radiology(ESR)에서 학술대회를 조직, 매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개최된다.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ICRP) 학술대회 4년 주기로 여러 국가에서 개최된다.

The Asian Oceanian Society of Radiology(AOSR) 학술대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 중 하나로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다양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에서 개최된다.

International Society of Radiographers & Radiological Technologists(ISRRT) 학술대회 대륙별로 순회하며 개최된다.

Asia-Australasia Conference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AACRT) 학술대회 호주, 일본,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18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Pan Arab Interventional Radiology Society(PAIRS) 학술대회 중동 아랍권 지역 중재적 영상의학의 학술대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린다.

Arab Health (Total Radiology Conference) 학술대회 아랍지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 겸 의료기기 전시회이다.

### 해외 국제학술대회장에서의 점검사항

해외 국제학술대회에서 현장 발표가 처음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발표 장소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학회마다 규모가 다르듯이 학회장의 공간 또한 다양하다. 발표하는 공간이 나란히 붙어있는 곳도 있지만 발표 장소가 층별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건물별로 발표장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학회장에 도착하면 본인이 발표해야 할 발표장소의 위치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발표할 단상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리 서서 청중들과의 눈높이 위치, 발표 화면 위치 등을 미리 감지하여 발표장에서의 어색함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것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Preview room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국내 학술대회장에서는 전혀 본 적은 없



었고, 해외 국제학회장이라고 모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해외 국제학술대회장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Preview room은 말 그대로 발표장에서 발표하기 전에 혼자서 프리젠테이션을 리허설처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여 현장에서의 긴장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발표 전에 좌장과의 인사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 학회 참가의 필요성과 의미

해외 학회 참가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발표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최근 발표된 논문의 주제 분야는 영상 검사 기법의 평가, 영상 검사 기법의 개발, 안전한 선량 피폭 관리, 환자 안전관리, 최신 영상 장비의 임상 평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

능) 관련 주제, 질 개선 향상 활동(QI: Quality Improvement), COVID-19 상황에서의 부서별 근무 및 업무의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향후 방사선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해외 학술논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학술적인 흐름과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 학회에서의 발표 혹은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최신 연구들은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를 반영하며, 최신 기술과 기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해외 학술논문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학회 참석은 다수의 관련종사자가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과 만남의 공간이 되며, 여러 발표자의 지식과 다양한 분야를 발표자 간에 직접 대화함으로써 관심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에 각 국가 협회간의 학술적 교류, 친선 관계 교류, 정기적인 협회 간의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를 진행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해외 학회 참석은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 발표자들의 최신 연구 동향을 확인할 좋은 기회이면서도, 또한 해외 학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현재 발표 주제 수준, 발표력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영어발표가 필수적이므로 일반 영어 구어 표현이 아닌 학술논문 발표에 적합한 학술적으로 표현하는 영어 구어체를 반드시 준비해서 구연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좌장과 일반 외국 회원들에게 본인이 발표할 주제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필자는 많은 국내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국내 방사선사 선생님들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면서 해외 국제학술대회에서 직접 발표하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주제의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을 만한 발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회에서만 발표하는 까닭에 훌륭한 발표 자

료 내지는 주제가 사장되는 현장을 많이 본 필자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있었다. 이 기고문을 쓰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국내 방사선사 선생님들께서도 준비를 잘하셔서 해외 국제학술대회에 적극 참가하여 좋은 내용의 주제를 많이 발표하시기를 적극 권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해외에서의 학술발표 경험과 영어 사용 능력 향상 등의 개인적인 성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기 바란다.

### 맺음말

보건의료 분야 중 방사선의학 장비 및 검사 분야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방사선 장비 및 기술학의 발

전 속도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방사선사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시는 많은 논문의 내용적인 전문성은 어느 해외 국제학회에서 발표하여도 당당하고 앞서갈 주제의 논문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좋은 주제의 논문들이 국내 학회에만 국한되지 않게 세계의 다양한 해외학회에서도 많이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한국 방사선사의 위상을 높이고 알리는 것은 물론 연구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기 바란다. ㉠





## 기사? 방사선사! 호칭 문제

글 성열훈(청주대학교)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낭만닥터 김사부' 최종회에서 '포터블 기사'라는 호칭 사용으로 방사선사분들의 기분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언짢았을까요? 혹자는 '의료기사(醫療技士)법에서 정의된 명칭을 따라 기사라고 말한 것이 무슨 잘못이나? 기사도 전문직이다'라고 반문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칭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기사(技士)'란 '운전사를 높여 이르는 말' 또는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의 하나로써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에 의거한 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 자'로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사의 시작은 문헌에 의해 1913년 세브란스의학교 부속병원 외과의 강문집 교수를 도와 엑스선검사를 전담한 이일선 선생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엑

스선장치는 초보적 기술로 Gas관 형태의 기계식 정류장치여서 전기기술자들에 의해서 주로 다뤄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는 일제강점기로 일본의 기술중시 문화로 '기사'라는 호칭은 존중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920년 미국 방사선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adiological Technicians, AART)가 시카고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엑스선을 이용한 의료검사장비는 단순일 반촬영장비와 투시촬영장비만 있었기 때문에 방사선사의 직무는 지금보다 매우 단순했기 때문에 기사의 영문 표현인 'Technician'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립 이후 6·25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법제도를 일제강점기때 사용된 일본식으로 받아들여 1963년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엑스선사'라는 명칭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7월 31일 '대한엑스선사협회' 창립총회가 열려 지금

의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모태가 됩니다. 그 후 1973년 2월 '의료보조원법'이 '의료기사법'으로 바뀌고 '엑스선사'도 '방사선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미국도 1964년도에 협회 명칭을 'American Society of Radiologic Technologists(ASRT)'으로 변경하여 방사선사들이 'Technologist'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챕터 시스템(chapter system)을 채택하여 복수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T 방사선사는 'CT Technologist', MR 방사선사는 'MR Technologist'라고 표기하며, 호칭은 줄여서 'CT Tech.', 'MR Tech.'이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방사선사들을 'Technician'이라고 부르면 우리에게 기사라고 호칭한 것과 비슷하게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CT Tech.'과 'MR Tech.'에서 'Tech'은 'Technician'이 아닌 Technologist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Technician'과 'Technologist'은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이 차이에서 왜 '방사선사'를 '기사'로 호칭하면 안 되는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기사 즉 'Technician'은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중심이 아닌 기술중심으로 주어진 기술에 숙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Technologist'는 엔지니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광의의 전문기술자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의료분야에서의 'Technologist'는 주어진 검사의뢰만을 숙련된 기술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소한 선량으로 정확한 검사와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만약, 의사 처방에만 의존하여 검사나 치료 당시의 환자상태를 무시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Technician'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위로의 말로 진행되는 검사 및 치료를 더 요구하고 있고, 방사선사들은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며 임상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임상현장에 있는 동료로부터 '기사'라는 호칭을 아무리 정중히 들어도 그 의미가 다르게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에 상처를 받습니다.

과거 간호사들을 법령에 의해 간호원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고, 간호원이라고 부르던 그분들도 역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호가 단순히 진료의 보조영역이 아닌 독립된 간호영역의 주체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업무의 영역을 좁혀서 호칭하는 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방사선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를 운용하는 기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또 환자분에게 검사자로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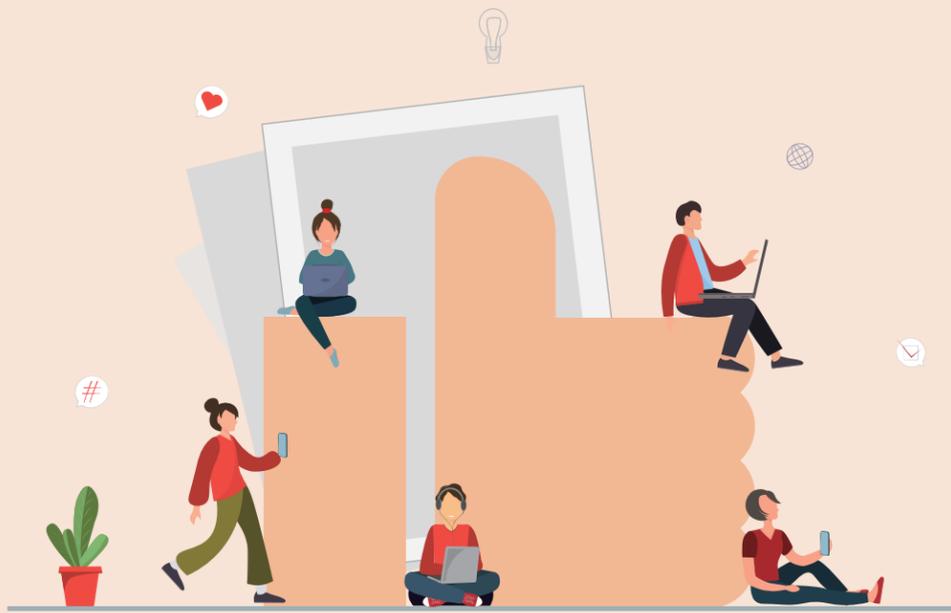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속하게 '의료기사법' 명칭을 '보건의료인법'으로 개정하여 일제 잔재의 구시대적인 용어를 탈피하고 국제적 인식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 의료방사선영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여 장비를 운영하는 노동의 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줄어드는 노동의 방향성은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사법'은 근본적으로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의 직역과 충돌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의료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둘째, 방사선사들의 자질 향상입니다. 국민보건의 최일선에 있는 직업적 소명감으로 단순히 의료 기계를 운영 및 촬영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지속적인 공부로 방사선 검사 및 치료 전문가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나부터 노력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가가 될 때, 호칭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①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자안전관리 및 이동형엑스선장비 실습

# 초심자를 위한 논문 잘 쓰는 법, 『논문의 힘』

글 백인성(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



처음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 잘 쓰는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은 혼자만 겪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학원에 간다고 해도 그곳은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곳일 뿐, 논문을 쓰는 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막막함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이 『논문의 힘』이라는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우선, 논문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윤리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글쓴이는 논문은 개인이 만들어낸 창작물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보통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나오고, 인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쓴 논문이 오로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재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에 대한 윤리라고 하면 대표적인 문제가 표절에 대한 문제인데,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자신의 논문 주제와 비슷한 글들을 끌어 모아서 여러 문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논문의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논문들과의 내용이나 아이디어, 표현의 흐름 등이 지나치게 유사하면 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은 혼자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대학원에 간다고 해도 그곳은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곳일 뿐,  
논문을 쓰는 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막막함을 겪고 있는 문들을 위하여 이 『논문의 힘』이라는 책을 추천한다.



쓸 때 한 문장 안에서 쓴 3개의 단어가 연속해서 다른 사람의 문장과 같을 경우, 우리는 이 문장을 표절로 간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논문 글쓰기가 내 사상의 흐름에 근거한 글을 쓰되 학문적인 지식과 다른 연구의 결과, 주장 등을 반성적으로 읽고 고찰하며 자신의 연구 주장을 더해가는 '성찰하는 글쓰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다른 연구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해당 연구를 성찰적으로 읽고 이해한 바에 대하여 쓰는 것, 이른바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윤리적인 태도를 갖춘 후, 논문의 '큰 틀'을 구성해야 합니다. 논문은 문학이나 수필과 같이 하나의 '장르'를 가진 글쓰기임을 이해해야 하는데, 논문은 단순히 어떤 화제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관심있는 주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글임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는 흔히 가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연구 주제에 대하여 'A일 경우 B일 것이다'와 같은 가설을 세운 후, 당신은 해당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당신이 논문을 쓰고 싶다면,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사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단순히 내가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있는 화제나 대상만 정해서 논문을 시작하려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글을 쓰다가 흐름을 잃어버리거나 연구에 대한 설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 대상을 찾는 것부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 방사선사의 경우 병원에서의 임상 경험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출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 대상을 찾아봅니다. 대상은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성인 여성이나, 골절상을 입은 청소년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 들여온 검사 장비, 특정 촬영 기법과 같은 기술

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 대상이 있다면, 그다음 그 대상을 바탕으로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흔히 '주제'라고 많이 일컫습니다. 주제를 찾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여러 책이나 논문을 읽으면서 관심이 가는 것을 메모해보거나, 여러 학술대회에 참가하며 어떤 주제의 발표가 흥미로운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학원 과정 중에 있다면, 여러 교수님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신과 잘 맞는지를 판단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임상 경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할 때 기계적으로 매일 똑같은 일을 하기보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한다면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연구의 대상과 주제가 결정되면, 당신의 논문의 제목은 A(연구 대상)에 대한 B(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를 정했다고 모두 논문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 논문을 쓰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이 목적은 독창성, 타당성, 객관성, 정확성, 소통 가능성, 윤리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연구여야 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누구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연구여야 합니다. 연구의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학계에서 전달력이 강력한 연구면 더 좋습니다. 또한, 아무리 위대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윤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면 진행이 될 수 없겠지요.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위의 요소들을 다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연구인지를 사전에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요소들을 마땅히 부합할 수 없는 연구라면, 안타깝지만 연구 주제를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을 모두 적합하게 세웠다면, 해당 연구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방법론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흔히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방법이 세워지게 되는데, 크게는 양적 연구를 할지, 질적 연구를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

반적으로 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찰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 질적 연구의 경우 많은 연구 경험을 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양적 연구의 경우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중재를 수행하게 되는 무작위실험연구(RCT)와 유사실험연구가 있고, 대상자에게 중재하지 않고 대상자의 데이터 값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비실험연구도 있습니다. 초심자는 주로 양적연구 중에서도 비실험연구를 많이 하게 되며, 단순한 서술적 조사연구부터 코호트 연구 등의 다양한 기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 방법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하여 공부하시고 방법을 설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단계까지 와야 당신은 서론 쓰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행 연구를 많이 찾아서 읽어보시고, 내 주제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기존까지 되어 있는 연구는 어디까지인지, 아직 수행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를 잘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야 표절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론에 대한 부분은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연구 배경을 서술해주시고, 그다음 선행 연구에 대해 검토한 시안을 서술해주세요.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연구 목적을 기술해주시면 좋은 서론이 될 것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배경, 문헌고찰이 연구의 목적과 연관되도록 구체화와 구조화를 잘해야 읽기가 편한 논문이 됩니다. 이후 연구 방법에 여러분이 사용하려는 방법론을 잘 기술해주시고,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제외기준, 연구 도구와 데이터 수집 방법,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요약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실험 결과에서 어떤 것이 유의미하게 나왔는지,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는지에 대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의미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서술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결과를 위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는 표(table)나 그림(figure)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해주세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에 대한 부분을 쓰면 되는데, 주로 유의미했던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연구에서 세운 가설이 있었

다면 그 가설이 맞았는지, 해당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계점은 없었는지, 추후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더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초심자를 위한 논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

아보았습니다. 크게 논문을 쓰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 논문을 쓰기 위해 사전에 잡아야 할 큰 틀, 논문의 각 파트를 쓰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논문에 대한 각 파트를 심도 있게 쓰려면 단순히 몇 개의 글을 읽어보려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논문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문을 처음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❷



『논문의 힘』 김기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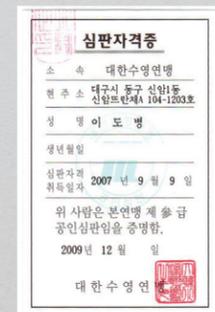
WITH KRТА

# 건강한 소통

KRТА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48 Interview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다수의 특허 등록으로 연결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이도병 방사선사
- 52 Thinking  
존재는 함께하는 시간이다
- 54 Trend  
화제의 ChatGPT, 학생들 사이에서도?
- 56 Challenge  
한국 방사선사의 미국 ARRT준비 및 취업 도전기
- 60 Webtoon  
숨 참으세요

#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다수의 특허 등록으로 연결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이도병 방사선사



Q 간략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이도병 방사선사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도에 마산대학교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한 후 같은 해 12월 고향인 대구에 내려와 현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MRI실 팀장으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이도병이라고 합니다.

Q 여러차례 특허를 내셨는데 어떤 특허들이가요?

A 이도병 방사선사 저는 특허 등록을 3번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개발로 이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발명은 2014년도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할 때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식당 같은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영·유아용 식탁 의자를 보고 얻은 아이디어로 '어린이 방사선 촬영 보조기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흉부, 복부 등 엑스선 검사 시 앉은 자세로 안정감 있게 고정된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어 아이가 다치지 않으며, 재검사하는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명 시기가 꽤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019년도 일반영상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정형외과 내원 환자 중 슬개골 탈구가 발생한 환자의 무릎을 엮드린 자세로 검사한 적이 있었는데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환자가 통증을 덜 느끼면서 검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책과 논문을 찾아본 후 '슬개골 영상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 보조기구'란 이름으로 기구를 설계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2021년도에 두 번째 기구를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고민하여 기구 사용 전, 후 영상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공식 YOUTUBE



66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검사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통증의 강도라든지 검사의 만족도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99

추적 관찰하면서 최적의 영상 구현을 위한 환자의 자세와 무릎 각도 설정, 두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 바퀴 설치, 그 밖의 기능을 추가하여 '이동용 무릎관절 엑스선 촬영 보조기기'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특허를 받았으며, 현재 일반영상검사실 현장에서 사용 중입니다.

**Q** 특허뿐 아니라 논문도 여러 편 쓰셨고 최근 협회에서 표창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A** 이동병 방사선사 학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방사선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에 비하면 제가 쓴 논문은 몇 편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저는 석·박사학위 논문을 제외하면 SCI급 1편, SCOPUS 1편, KCI 4편, 총 6편을 저널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올해 1월에 협회에서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Q** 앞으로도 특허와 논문을 더 쓰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동병 방사선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발명한 '어린이 방사선 촬영 보조기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투박하고 활용도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어린이 엑스선 검사 중 머리와 가슴, 복부에 한정하여 작고 단순한 형태의 기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일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이동병 방사선사 저희 영상의학과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검사하는 부서이다 보니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검사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통증의 강도라든지 검사의 만족도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저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거리가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서 왔는데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Q** 앞으로의 행보와 각오는 어떤가요?

**A** 이동병 방사선사 저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직원들과 즐겁고 뜻깊은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력은 높이 되 자세는 항상 낮추는 방사선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사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논문은 올해 추계 학술대회 발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 밖에 여러 자격증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이동병 방사선사 저는 '대한적십자사 수상인명구조원', '대한수영연맹 경영심판 3급-경영지도자', '스포츠마사지사 2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상인명구조원은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하며 자격을 이어가고 있어 일상생활이나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 존재는 함께하는 시간이다

글 양한준(前 을지대 교수)

인구의 증가와 노령화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인류는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고민은 살아야 하는 시간이 2021년 출생한 남자의 기대 수명으로 환산해도 이제 20년도 안 된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많은 분과 순간순간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생명표'에서는 2021년 출생한 아이가 100세 이상까지 생존할 확률은 3.4%이다. 2020년생 3.2%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 첫 집계를 시작한 1970년생은 이 비율이 0.1%로 51년 새 34배로 늘었다. 2021년생 남자는 100세 이상 생존 확률이 1.4%, 여자는 5.5%에 달한다. 2021년 출생한 아이는 평균 83.6년 살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생은 80.6년으로 추정했었는데, 10년 새 3년 늘어났다. 나이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기대 수명이 된다. 기대 수명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62.3세) 이래 매년 늘어났다. 2021년생 남자는 기대 수명이 80.6년, 2021년생 여자는 86.6년으로 추정돼 전년보다 모두 0.1년 늘었다. 남녀 격차는 2020년생과 같은 6년이다. 남녀 간 기대 수명 격차는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남자 기대 수명은 OECD 평균 77.7년보다 2.9년, 여자 기대 수명은 평균 83.1년보다 3.5년 높다고 밝혔다.

주요 사망 원인인 암이 없어진다면, 남자의 기대 수명은 80.6세에서 84.9세로, 여자는 86.6세에서 89.2세로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했다. 자신이 불리하면 합리화시키는 게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으로 반증 된다.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에 인연이 되어 내 주변엔 나이 드신 어른이 많다. 인지력 장애에서부터 신체 활동 장애가 있는 분까지 같은 듯 서로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상태는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히게 되어 회복이 어려워진다. 정상적이고 젊었다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신체와 정신의 작은 불편함은 큰 독에 난 쥐구멍같이 작용하게 된다. 어떤 어른의 경우에서 이런 경험을 봤다. 침대에서 내려설 때, 실내화가 발에 바로 신어지지 않아 빼끗하는 순간 발생한 실수가 큰 사고가 되었다. 평생의 습관이라서 바로 바꿀 수 없고, 내려선 다음에 신발을 신기를 권해도 대답은 하지만, 그 순간이 되면 습관처럼 실내화를 신는 것을 먼저 하게 되어 큰 사달이 난다. 한 번 어긋난 일이 생기면

그런 실수가 자꾸 되풀이된다. 작은 실수가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큰 사고가 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침상에서 지내게 되며, 중국에는 힘든 노후를 오래오래 지낸다. 내게도 나이 숫자와 함께 늘어나는 게 있다. 먹는 알약의 숫자다. 50대를 넘기면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타난 불편함을 진료받고 열게 된 것은 먹는 약이다. 심하게 불편한 것은 아니라서 먹는 약만으로도 괜찮아질 것이라는 진료 의사의 처방에서부터 시작한 약이다. 또 건강을 유지해야 할 것 같아서 생각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도 모두 먹는 약 같이 생겼다. 자세히 세고 싶지 않다. 이제 60대 중반을 바라보면서 손바닥 안에 가득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가 됐다. 그뿐인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먹어야 하는 현실이다. 혹자는 약으로 배를 채운다고까지 할 정도가 됐다. 이런 현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먹는 약만으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음이 무척 다행스러운 것이다. 어려서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증상으로 아프든지 벽장 속 '뇌신과

명량'이라는 진통제를 상용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가족들이 아파도, 먹다 남은 약도 만병을 통치하는 약이었다. 먹었다는 효과를 가지고 통증을 참았다는 것을 이 나이에 새삼 느껴본다. 혼자 슬그머니 웃어진다. '세상 좋아졌다'라는 말이다. 인구의 증가와 노령화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인류는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고민은 살아야 하는 시간이 2021년 출생한 남자의 기대 수명으로 환산해도 이제 20년도 안 된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많은 분과 순간순간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은 살아온 세상에 대해 하소연을 해 본다. 가수 장기하가 신곡을 내겠다고 하면서 목청껏 부르는 노래가 간결하게 들린다. "해".<sup>Ⓚ</sup>

66  
한 번 어긋난 일이 생기면  
그런 실수가 자꾸 되풀이 된다  
99



# 화제의 ChatGPT, 학생들 사이에서도?

글 최민영(신한대학교 19학번), 박서원, 함윤아(신한대학교 21학번)



신한대학교 전경



최민영, 박서원, 함윤아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뛰어난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는 'ChatGPT'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66  
99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뛰어난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는 'ChatGPT'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ChatGPT란 원하는 정보를 글로 작성해서 입력하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답변하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이것은 지식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관련 질문에 대해 답하거나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천국'이 대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ChatGPT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학생 4명 중 1명이 과제나 리포트 작성 시 정보 탐색 및 참고를 위해 활용한다고 답했다. 이렇듯 ChatGPT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이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가 있다.

## 질문

이 방법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특정 주제와 개념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학생들은 수강과목, 과제, 상

식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고, ChatGPT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작문 기술 연습

학생이 작성한 글에 대한 문장구조와 스타일을 교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작문 역량을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은 글쓰기 과제 또는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ChatGPT를 이용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업 및 취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연구

특정 주제와 개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학생의 유용한 리서치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ChatGPT로부터 연구와 관련된 논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소스를 확인할 수 있다.

## 아이디어 얻기

과제 혹은 프로젝트의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ChatGPT는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팀 이름과 같은 간단한 아이디어부터 과제 주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특정 주제에 관한 보고서 목차 구성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얻을 수 있다.

## 언어 학습

학생들은 다양하고 정제된 언어를 활용하는 ChatGPT와 커뮤니케이션 및 교정 과정 등의 통해 언어 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 다른 언어를 해석하고 번역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외국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대화 시나리오 생성 요청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도 익힐 수 있다.

##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

파이썬(Python), 자바(Java)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

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영상 수집을 위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줘.'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관련 코드를 제공해 준다. 학생들은 복잡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ChatGPT를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게임, 설계 등 취미 활동에 ChatGPT를 사용하거나 단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다.

위와 같이 ChatGPT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기를 얻음에 따라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바로 학습력 저하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학 측에서 자료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참고 자료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세운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를 시작으로 국내 대학에서는 ChatGPT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ChatGPT를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학습을 대학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❶

# 한국 방사선사의 미국 ARRT준비 및 취업 도전기

글 이명화(Touro college)



## 미국 방사선사-해의 취업에 도전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Touro college를 졸업 후 미국 방사선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명화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기 전에 인생 선배이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김철구 선생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천대학교 재학 당시 저의 모교 선배님인 김철구 선생님의 '미국 방사선사-해의 취업 특강'을 듣고 특강이 끝난 후 김철구 선생님께 달려가 메일 주소를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국 방사선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꿈을 구체화했던 계기는 김천대학교의 미국 방사선사 실습 기

회였습니다. 김천대학교 나수경 교수님, 김창규 교수님의 도움으로 2015년 3명의 학생과 함께 Harlem hospital에서 미국 방사선사 실습 및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병원 시스템, 의료 문화, 치료 환경을 체험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한 의료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운 길을 걷는 두려움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Touro college에 진학하였습니다. 항상 그때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미국 생활을 해왔고 결국 꿈에 그리던 미국 방사선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미국에서 Radiology를 졸업하면 Radiography(R)이 주어진다.  
 또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CT, MRI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미국에서 CT, MRI 자격증은 Radiography(R)의 상위 자격증이다.  
 CT, MRI 등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갖춰 수업을 듣고 실습 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

## 한국 국가 고시와 ARRT의 차이는?

미국에서는 한국의 방사선사 학위와 방사선사 면허가 인정되지 않아 ARRT(American Register of Radiologic Technologists)가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2년마다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0년에 한 번씩 Continuing Qualification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세부 항목별로 이루어지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수 교육을 통하여 방사선사들의 수준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면허 이수 후 원하는 분야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Radiology를 졸업한 학생은 Radiography(R)이 가장 먼저 주어집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CT, MRI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CT, MRI 자격증은 Radiography(R)의 상위 자격증입니다. CT, MRI 등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갖춰 수업을 듣고 실습 후 자격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방사선사는 줄여서 Radiologic Tech.로 많이 불리지만 'tech'는 Technician 기술자가 아닌 Technologist를 써 Radiologic Technologist 혹은 Radiographer라고 합니다.

## 미국에서의 방사선학교 수업

제가 이수한 프로그램은 Advanced 프로그램으로(\*2022년을 기점으로 Advanced 프로그램은 없어짐), 한국에서의 방사선과 학점을 인정받고 입학하여 수업보다는, 방사선사 자격증을 대비하는 수업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은 한국의 대학교 과정처럼 중간고사 시험과 기말고사 시험이 있었고, 쪽지 시험을 자주 치렀습니다. 졸업에 가까워질 때는 모의

고사를 자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방사선 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후 성적이 평균 75점 혹은 학교에서 정한 특정 점수 이하가 되면 개인 면담 후 퇴학 처리가 되기도 하는데, 한 학기가 지날 때마다 정들었던 몇몇 친구들이 사라진 걸 보면서 아쉬움도 컸지만 매우 원칙적인 미국의 문화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방사선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영어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미국에서 당연히 모든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인과 같은 영어 능력은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까지는 방사선학교 수업과 실습을 이수했고,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는 CUNY(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일 1시간 거리를 뉴욕 지하철로 오가며 하루 18시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일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방사선학교 수업과 영어 학원 숙제를 하다가 책상에서 잠드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꿈에서도 그렸던 생활이었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미국 방사선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든 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미국 방사선학교의 실습

학생들은 방사선사와 마찬가지로 TLD dosimeter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매달 한 번씩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는 실습 중 학생 개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에서 하는 실습은 대부분 Clinical observation, Shadowing으로 진행되지만 미국은 실습 병원은 학기별로 다르며, 매주 2~3번은 실습을 나갑니다.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 In



patient, Out patient, OR, ER, Trauma 환자를 대면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의 방사선사 선생님께 2~3명의 학생이 함께 배정되며, 직접 환자를 모셔와 포지셔닝을 잡고, 엑스레이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PACS로 전송 전 방사선사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복장은 학교마다 다르나, 제가 다녔던 Touro college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짧은 랩 코트, 하늘색 셔츠, 흰 스크럽 바지, 흰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며, 실습 중 Clinical coordinator에게 복장 규정에 대한 벌점을 받기도 하고, 실습 중 실습 태도나 실습 점수도 몰래 채점했습니다.

### unfair와 fair 사이

한국에서 배웠던 겸손이 실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실습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특수한 부위는(?) 아주 가끔 출몰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럴 경우 방사선사 선생님께서 순번을 정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 후 케이스를 이해한 친구에게 우선 배정해 주기도 합니다.

한 학생이 제가 해야 할 Clavicle 실습 케이스를 들고 본인이 하기 위해 도망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화도 못 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불공정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이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한국에는 선배, 후배라는 문화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경력, 국적,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문화로, 내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그 대상이 내 동료이건 직장 상사이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보통의 한국인인 저는 타인을 존중하되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는, 상황에 맞는 태도를 갖추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처음 실습할 때가 생각합니다. 정말 긴장되었는데, 직접 환자를 대면해 본 적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에 걱정만 앞섰습니다. '과연 내가 이 케이스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CT Tech.로 일하고 계시는 아주 인상 좋으신 분께 가서 "Kerri 아주머니 제가 영어를 잘 못 하는데, 혹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혹시 Script를 적어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부탁드린 후 공책에 받아 적어 환자 앞에서 책처럼 보며 읽었던 기억도 나고, 환자분께 포지셔닝 설명을 못해 더듬더듬 말하면서 바디랭귀지로 몸소 시범을 보여준 웃픈 기억도 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질까봐, 영어 수업을 가지 않는 주말은 늦은 밤에 혼자 ER에 남아 늦은 밤까지 실습을 하기도 하였고, 누구보다 일찍 와서 다른 tech.들에게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연습했던 추억은 힘들었지만 다시 생각하면 지금의 저를 있을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멘토가 되어준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응원 덕분에 힘든 일들을 버티며 미국 방사선사시험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는 선배님들께 도움을 받은 만큼 저의 후배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구 선생님, 나수경 교수님, 김창규 교수님, Ms. Evans, Mr. Baah, Dr. Ghattas, Ms. Kerri, Ms. Lauren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번 더 감사함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K**

# 논문(초록)모집

##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

일시: 2023년 10월 28일(토)

장소: The-K호텔 서울

### 논문모집(국문,영문)

회원 분야별 구연 및 포스터  
재학생 구연 및 포스터

### 제출처

협회 홈페이지

### 초록 및 전문 제출 기한

2023.8.31.(목) 24시까지 (기한연장 없음)

- 논문투고규정 및 첨부 양식 참조
- 협회로 투고하고, 게재 동의 시 "대한방사선사논문지"에 게재
- 논문 전문 제출 시 유사도 심사결과 제출
- 포스터 발표자도 초록 제출

### 시상

학술상: 논문전문과 초록을 제출한 회원 대상

- 최우수상 1편(200만원)
  - 우수상 2편(각100만원)
  - 장려상 3편(각50만원)
  - 포스터: 최우수상 1편(30만원), 우수상 2편(각20만원)
- 구연상: 초록 제출, 구연발표 회원 대상

### 발표자료

구연: 10월 13일(금) 24시까지 (8분 이내)

포스터: 8월 31일(목) 24시까지 (가로 90cm x 세로 130cm)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 숨 참으세요

틀

## 23. 호칭

웹툰 형식으로 아래로 길게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방사선사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시지요?



우리들끼리는 선생님 또는 쌤 이라고 줄여서 부르곤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호칭은 선생님

방사선사 선생님, 어르신들에게는 줄여서 선생이라 자주 불립니다.



\* 제가 근무했던 소아방에는 한 선생님이 사두신 어린 친구들을 위한 사탕이 언제나 준비되어있었습니다.  
\* 혹시나 어린 친구들이 치과 치료 중이나 다른 질병이 있을 수 있어서 보호자 분에게 여쭙고 사탕을 주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불러주시는 호칭 '선생님' 이란건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아직도 어색합니다.)



명칭이자 호칭은 그걸 받는 사람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마법같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에게 받는 이미지는 별로 크지 않다!



어느날 본인의 하루를 털어두던 동기쌤



열심히 포타블(이동용 X-RAY 촬영기기)을 끌고 병실로 올라갔던 동기쌤

\* 포타블 근무자가 따로 있으며, 매년 방사선사를 돌아가며 배정해서 근무합니다.

EICU  
응급중환자실  
CCU  
순환기계  
중환자실  
ICU  
중환자실



NCU  
신경외과  
중환자실  
NICU  
신생아  
중환자실  
TICU  
외상  
중환자실

\* 포타블 (이동용 X-RAY)은 전혀 움직여서 영상의학과까지 내려올 수 없는 환자들을 촬영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난 지금 몸서도 HIGH한 기분이다



\* CHEST (체스트)란 흉부 (가슴) X-RAY의 촬영 자세를 말합니다

\* 코드블루란 갑자기 심정지가 되어 위험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병원 원내 방송 긴급코드입니다



\* 코드레드, 코드블랙, 코드 화이트,등등 생각보다 많지만 코드블루 외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많이 서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숨 참으세요' 는 네이버 도전만화와 애니원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입니다.  
네이버 http://comic.naver.com/challenge/list.nhn?titleId=690698  
애니원툰 http://anyonetoon.com/AocWebtoon.aoc?webtoon\_num=57&

# 제20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공고

『제20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을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장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공지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20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공지 드리니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코로나 확산증가 또는 정부 방역지침 강화 시에는 시험 시행 연기에정
- 시험 응시 제한

코로나 19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당일 시험장 준수사항

- ①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장
- ②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가 시험안내

### 1. 일정 및 장소

회차	지역	시험일	시험장소
1회	수도권(성남)	8월 20일(일)	신구대학교 동관
2회	수도권(성남), 중부권(대전)	11월 12일(일)	신구대학교, 건양대학교

### 2. 응시 최소인원

○ 각 해당분야에 응시인원 5인 미만일 경우 시험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세부일정

회차	지역	시험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수험번호 공지	합격자 발표
1회	수도권	8월 20일(일)	7월 10일(월)~7월 28일(금)	8월 7일(월)	8월 25일(금)
2회	수도권, 중부권	11월 12일(일)	10월 4일(수)~ 10월 16일(월)	10월 30일(월)	11월 17일(금)

## 나 응시분야

### 분야

- |                      |                     |
|----------------------|---------------------|
| ①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 ⑨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
| ②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 ⑩ 투시 전문방사선사         |
| ③ 유방 전문방사선사          | ⑪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
| ④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 ⑫ 치료 전문방사선사         |
| ⑤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 ⑬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
| ⑥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 ⑭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
| ⑦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 ⑮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
| ⑧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 ⑯ 방사선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
|                      | ⑰ 방사선 의학물리사         |

## 다 시험시간

시간	내용	비고
1교시(10:00~11:30)	권역별 온라인 시험장 운영으로 회차별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응시분야 시간표 및 세부사항 공지	1) 문항수: 90문항 90분 시험 2) 시험방식: 온라인 (CBT)
2교시(12:30~14:00)	회차당 1분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3교시(15:00~16:30)	(다중분야 응시불가)	

##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방법: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작성 후 접수(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 협회 웹사이트 [My page] → [개인정보조회수정] → [일반정보 수정하기] → [회원사진]
  - 사진용량은 100Kbyte 까지만 허용합니다. jpg 파일형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2.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응시수수료: 80,000원
- 납부방법: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결제

### 3. 응시원서 접수 확인

- 접수여부 확인은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4. 수험번호 공지 및 수험표 출력

-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 공지날짜 이후 수험표 개별 출력하여 지참

###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법을 참조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접수기간 내에 응시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진행은 전산화하여 운영되므로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등록 바랍니다.
- **과년도회비 미납자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납된 회비는 사전에 소속시도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작업은 접수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마 응시자격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인 자
- 2) 전문방사선사 양성을 목적으로 협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 방사선사 관련 외국의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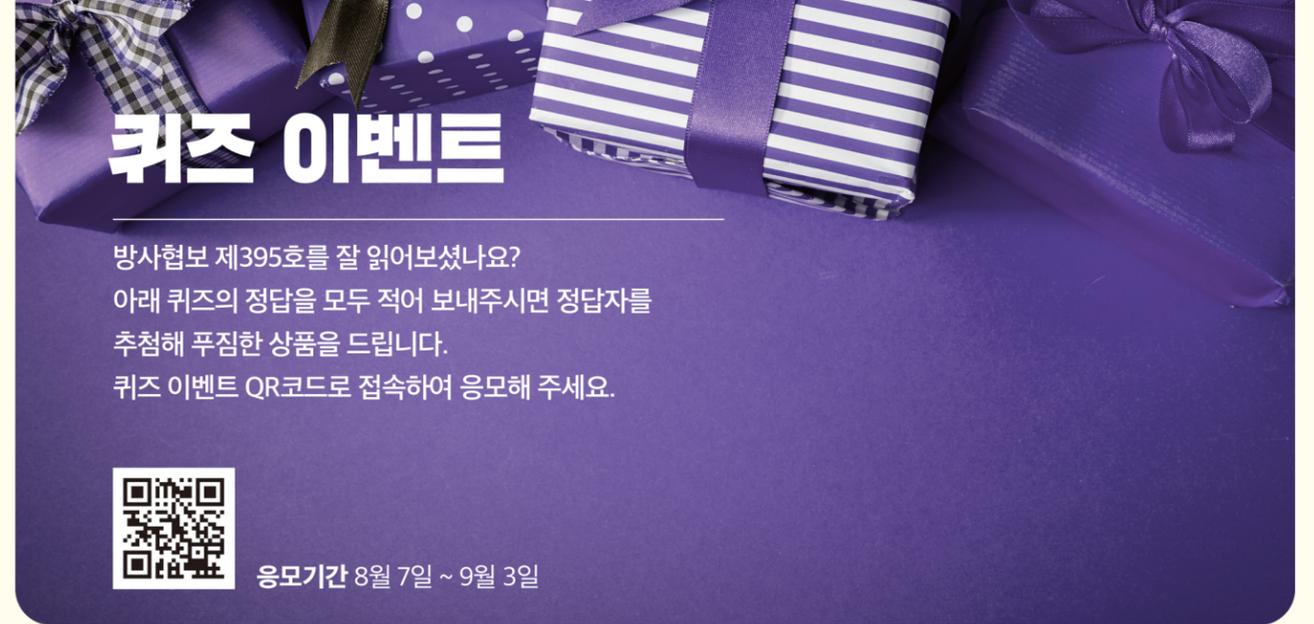
## 바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1.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2.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본인이 확인합니다.



# 퀴즈 이벤트

방사협보 제395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8월 7일 ~ 9월 3일

1등 골드바 반돈 (2명)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퀴즈 이벤트는 방사선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하며, 9월 20일(수)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iz 1 KRTA '방사선사의 날'의 날짜는?

Quiz 2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의 개최 날짜는?

Quiz 3 '의료기사법'은 근본적으로 직무 범위를 제한하여 '의료기사법' 명칭을 ( )으로 개정하여 일제 잔재의 구시대적인 용어를 탈피하고 국제적  
인식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건강한 정책 참조)

### 방사협보 제394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장운\*입니다.

방사선사라는 일을 시작한지 횡수로 20년 지났습니다^^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협회라는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가진지는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방사협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의 여러가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책과 소통으로 새로운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새로운 집행부의  
각오처럼 늘 회원과 소통하며 상생하는 협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퀴즈 이벤트도 매번 참여하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1등에 되어 기쁘고 쑥스럽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만드시는 분들도 힘을 내고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_장운\* 회원

평소 방사협보를 챙겨 보면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신청하곤 했습니다.

항상 3등만 되어도 다행이라 여겼는데 1등 당첨 행운이 저에게 와서 놀랍고도 기뻐했습니다.

방사선사의 권익 및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회원분들과 협회 임원진분에게도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며 무더운 여름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주영\* 회원



<방사협보>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의견을 보내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58  
YEARS  
ANNIVERSARY

# KRTA

## ‘방사선사의 날’

안녕하십니까,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창립 5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수고와 헌신을 기념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하고자  
창립기념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정하고 축하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3년 7월 31일 (월) 16:00

장소: 대한방사선사협회 세미나실(B1)

### 행사 내용

1. 국민의례 | 2. 축사/기념사 | 3.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지나온길 소개 |
4.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비전 소개 | 5. 축하케이크 커팅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한정환